

KB금융타운 개소...전북 금융집적 '가속'

혁신도시 금융거점 본격 가동
은행·증권 등 복합점포 운영
4대 금융그룹 집적 가시화
지역 상생사업도 확대

특히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이노베이션 전북HUB와 자본시장 영업조직, 자산운용 전주사무소, 비대면 상담 조직인 스타링크와 CNS도 입주해 민간 주도의 혁신도시 내 금융 거점이 조성됐다.

전북 혁신도시로의 금융권 이전은 KB 금융에 그치지 않는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2월 전북 금융 허브 출범식을 개최했으며 우리금융그룹은 5년간 1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밝히고 29일 개소식을 앞두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역시 자본시장 관련 기능을 모은 원-루프(One-Roof) 센터를 신설해 5대 계열사, 150여 명 규모의 인력을 전북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앞서 이 지사는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을 도정 방향으로 제시하며, 제2차 공공기관 유치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핵심 과제로



<사진=전북도>

추진해 왔다. 4대 금융그룹의 잇따른 전북 이전은 이 같은 도정 방향이 민간 투자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전북이 도민이 체감하는 금융특화도시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역 우수 인재들이 글로벌 금융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국민연금공단, KB금융그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마을까지 연금사업, 벤처펀드 재원 조성, 지니포럼 개최 등 지역 상생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들이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주세계소리축제>

세계소리축제, 백제예대와 인재 양성 '맞손'

현장실습·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연예술 콘텐츠 공동 개발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장 최철, 이하 소리축제)와 백제예술대학교(총장 박귀재, 이하 백제예대)가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재 양성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소리축제와 백제예대는 8일 한국 소리문화의전당 국제회의장 1층 세미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문화예술교육과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 축제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과 전문 인재 양성에, 소리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문화예술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교류 ▲소리축제 관련 현장

실습·지원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연예술 콘텐츠 개발 및 문화 예술 행사 운영 ▲양 기관의 홍보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예비예술인들의 현장 중심 창작 활동 경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공연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철 소리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대학과 축제가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예술인들이 축제 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귀재 백제예대 총장은 "전주세계소리축제와의 협력은 학생들에게 무엇보다 바랄 수 없는 현장 교육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도세 감면 확대...취득세 부담 완화

미분양·빈집 정비 세제 지원
인구감소지역 기업 유인 확대
일몰 예정 감면제도 3년 연장

역 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률에서 위임한 취득세 추가 감면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도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와 인구감소지역, 빈집 정비에 대한 취득세 추가 감면은 적용례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개인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25% 추

가 감면 ▲빈집 철거 후 신축하는 주택·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25% 추가 감면 신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7개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다.

우선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 취득하는 개인은 법률에 따른 취득세 감면에 더해 조례에 따른 취득세 25%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원 임대용 주택이나 기숙사 등으로 직접 사용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감면에 더해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 기업의 정주여건 조성과 지역 인구 유입

을 지원한다.

빈집을 철거한 뒤 3년 이내 신축해 취득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해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을 보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광단지 투자촉진, 시장현 대화사업,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임주자, 도서지역 발전시설용 부동산, 내장산리조트관광지 조성사업, 연 구개발특구 등 올해 말 일몰 예정인 7개 도세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기업 투자와 지역개발에 대한 안정적인 세제지원을 이어간다.

/장정철 기자

도의회 기획행정위, 축하 화분 이웃사랑으로

취임 축하 화분 아름다운가게 기증
판매 수익금 나눔사업 활용



염영선 위원장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염영선)는 8일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전반기 원구성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 취임과 위원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각계각층에서 전달받은 화분을 모아 아름다운가게 전북본부에 기증했다.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는 염영선 위원장을 비롯해 김창현 부위원장과 강태창·김정강·노경만·송재영·윤수봉·정종복·조은희 위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기증은 위원회가 뜻을 모아 축하의 마음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기증된 화분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 등 나눔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염영선 위원장은 "축하해 주신 소중한 마음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자 이번 기증을 마련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기획행정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은 물론 나눔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정철 기자

가 이익이 되나요. 싸워서 내란세력 승리하도록 돕는다면 해당 행위다. 더욱이 지금 대통령께서는 해외 외교활동 중"이라고 친 청계 의원들을 꼬집었다.

한편, 전주위는 친청계의 이같은 반발에 따라 전날 결정한 선호투표제에 대해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성윤 "선호투표제 무효"...민주 전대룰 논란 재점화

도입 시 전대당일 대표 선출 가능
당권주자 유불리 공방 속 제동
전준위 재논의 촉구



이성윤 의원

전날 전주위가 논의 끝에 결정한 '당대표 선호투표제'는 후보가 3명일 경우,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선호도를 표기하게 한 뒤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최하위 득표자 득표자의 표중 2순위를 1~2위 후보자에게 비율에 따라 안배해 과반득표자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당헌·당규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대표는 과반 이상 득표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당대회

당일 당대표가 선출되지 못하고, 추후 결선투표를 시행해야 하는 행·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같은 선호투표제가 도입된다면 김민석·송영길 의원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정청래 의원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친 청계인 이 최고위원이 당헌·당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반발한 것이다.

이 최고위원은 "당규 66조는 과반수 득표자를 당대표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면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전준위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당규 48조의2는 선호투표 방

법을, 당규 48조의3은 결선투표 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당규상 전혀 별개의 투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무적으로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다"면서 "순회 투표를 하고 있는 당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선거 방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 청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의원들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선호투표제가 가능하다면 당대표 선거에서도 가능하다"며 "전준위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에 따라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의 대표 출마에 반대해온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전대룰 싸우다?"라면서 "그러면 누

폭염 속 에너지 절약 방법

- 에어컨 작동시 최소 2시간마다 1회 (10분이상) 환기하기**
- 전기사용이 많은 오후2~5시 전기사용 줄이기**
- 실내 적정 온도 26도**
- 커튼과 블라인드로 직사광선 차단하기**

9일 전북 강한 비 예보 전북소방 '긴급회의'

전북소방본부장 등 30여명 '대응방안' 논의

전북소방본부가 8일 전행민 본부장 주재로 호우 대비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긴급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회의는 9일 새벽까지 전북지역 강한 비 예보에 따른 것으로 호우 대응에 총력을 펼쳐 도·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소방본부 각 부서 과장과

팀장 등 30여명이 참석해 기상 상황과 강수 전망을 공유하며 지역별 취약지역 관리상황, 비상근무단계 설정, 유관기관 협조사항, 현장 출동대응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북소방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실시간 기상정보 모니터링과 상황판단회의 수시 개최 △구조보트·구명환·양수기·동력펌프 등 수난·수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대형 공사장, 해안가, 하천변, 계곡, 상습침수지역 등 취약지역 중점관리 △지하차도·둔치주차장·

저지대 주택가 등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동로 점검 △119신고 폭주에 대비한 상황실 접수대 확대 운영 준비 △출동 수요 증가에 따른 비상동원체계 점검 등을 추진한다. 특히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릴 경우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지하차도와 저지대 도로가 순식간에 침수될 수 있는 만큼, 각 소방관서는 관할 시·군, 경찰 등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하며 위험지역 통폐와 주민대피 안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체

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전북소방은 도민들에게 호우특보가 발표되거나 강한 비가 내릴 때는 하천변 산책로, 둔치주차장, 계곡, 침수도로, 지하차도 출입을 피하고, 반지하주택이나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에서는 물이 유입되기 전 미리 안전한 곳 대피를 당부했다. 또 축대·옹벽 균열, 토사 유출, 도로 침수, 맨홀 유류 등 위험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119 또는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새마을회 '효사랑어르신 삼계탕 나눔'

1050세대에 나눔 전달
어르신 건강 기원

전주시새마을회는 8일 '2026 효사랑 어르신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정성이 담긴 삼계탕을 정갈하게 포장해 전주시에 35개 동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 105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새마을회(회장 송병용)가 주관하고 전주시새마을회(회장 황승일) 후원으로 마련됐다. 새마을지도자전주시협의회(회장 박창식), 전주시새마을부녀회

(회장 유선영), 새마을문고전주시지부(회장 한복순), 직장·공장새마을운동전주시협의회(회장 장명만) 회원 등 6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모여 삼계탕 재료 손질과 조리, 포장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한편 전주시새마을회는 매년 효사랑 삼계탕 나눔을 비롯해 건강검진 나눔, 밀반찬 지원,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봉사과 나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공동체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보건소 '힐링 텃밭 교실' 운영

장애인·보호자 치유 농업 심신 치유 기대

전주시보건소-전주시농업기술센터가 전주지역 장애인과 보호자 15명을 대상으로 치유 농업 프로그램 '힐링 텃밭 교실' 운영했다. '힐링 텃밭 교실'은 지난 5월 13일부터 이달 8일까지 총 8회 진행했다. 치유 농업 프로그램 '힐링 텃밭 교실'은 사회적·신체적 제약으로 야외 활동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 장애인들이 실내에서 안전하게 자연을 접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정서적 안정과 신체 기능 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힐링 텃밭 교실에서는 치유 농업



전주시보건소-전주시농업기술센터가 전주지역 장애인과 보호자 15명을 대상으로 치유 농업 프로그램 '힐링 텃밭 교실' 운영했다 <사진=전주시>

전문 강사가 참여해 △흙을 만지며 반려 식물 만들기 △알뜰달록 꽃바구니 만들기 △시들지 않는 아름다움을 담은 '드라이플라워 꽃다발 만들기' △심고자라는 향기로 심신을 안정시키는 '허브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자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손끝으로 꽃과 흙을 만지며 식물을 섬세하게 다듬는 일련의 과정은 소근육 발달과 관절 가동 범위 확대 등 신체적 재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는 기쁨을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공동주택 불법 주·정차 금지 '강조'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상반기 불법 주·정차 3건 과태료

박덕규 전주완산소방서장이 화재 등에 따른 긴급상황 출동의 원활한 현장 도착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박 서장은 이를 위해 공동주택 등을 중심으로 홍보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신속 진입과 소방활동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공간이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긴급상황 발생 시 이 공간 활용이 안될 시 초기 대응이 지연되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커진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상반기 공동주택 소

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2018년 8월 10일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한 공동주택이다. /김영태 기자



송천2동 자율방재단 '무더위쉼터' 안전점검

관내 15개 경로당 방문
냉방기기 안전 점검

전주시 송천2동 자율방재단(단장 정순우)은 8일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여름나기를 위해 관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1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시설물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방재단원들은 15개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에어컨 등 냉방기기

정상 작동 여부 △쉼터 내 환경 관리 상태 표전기시열 노후화 및 누전 위험 여부 △비상시 대피로 확보 등을 꼼꼼히 살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미비하거나 시설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주민센터와 연계해 신속한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어르신들에게 여름철 운영질한 예방 수칙과 폭염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며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소민 기자

서울 청년창업가 '넥스트로컬 지역캠프' 개최

지역자원탐색·지역파트너연계 로컬창업기반 마련

'넥스트로컬 전주 지역캠프'가 8일 개최됐다. 이번 지역 캠프는 전주시를 활용 지역으로 선정한 창업팀 대상으로 전주의 다

양한 지역 자원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소개하고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프는 서울시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지원사업인 '넥스트로컬' 일환으로 이어졌다. 캠프에는 전주문화재단과 전주관광재단,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지역 선배

청년창업가(홍시궁 대표) 지역 파트너가 참여했다. 이날 기관별 지원사업과 협업 가능 분야를 공유했다. 또 참여한 창업팀들은 각자 구상한 창업 아이템을 발표하며 지역 파트너와의 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자원 활용 방안과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번 지역캠프 이후에도 지역자원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청년이음전주 회의공간 지원과 창업지원사업 안내 등 다양한 행정 지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실패학교' 추진

하반기 5개교 시범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내 스마트폰 사용 기준을 일원화하고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폰 실패학교' 4개년 운영 계획을 수립해 올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내 모든 학교에 1인 1스마트기기 보급을 완료했으나, 학교별 학칙과 지도 체계가 달라 통합 지침 마련 요구가 이어져 왔다.

'스마트폰 실패학교'는 스마트폰 전면 금지가 아닌 학생 스스로 사용 시간을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또한 각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체적인 사용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 예시안을 개발해 보급한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대체 프로그램과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확대 지원한다. 전북교육청은 올 하반기 공청회와 사업 설명회를 열고 5개교를 준비학교로 선정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선정된 학교는 학생생활규칙 내 스마트 폰 사용 제한 조항 개정, 오프라인 대체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한다. 전북교육청은 향후 운영 성과를 분석해 참여

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장기영 미래교육과장은 "스마트폰을 무조건 막는 것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라며 "학교와 가정, 지역이 함께 건강한 디지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주시 복장 간소화 정책 '캐주얼데이' 운영

출퇴근 스트레스 낮춰

전주시 복장 간소화 정책 '캐주얼데이'가 본격 운영된다. '캐주얼 데이'는 직원들의 업무 및 출퇴근 스트레스를 완화해 탄소 중립 위한 대중교통·자전거 이용 촉퇴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시는 기존 매주 수요일에 시행해온 다른 정책들과 이번 도입된 제도를 연계해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매주 수요일 △정시 출퇴근을 유도하는 '가족 사랑의 날' △대중교통 이용 확산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캐주얼데이가 날 조지훈 전주시장은 편안한 복장으로 직접 시내버스를 이용해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소민 기자

전북대병원 심장질환 '맞춤형 심장재활' 사업 전개

일상 회복과 재발 예방
취약계층 대상 검사·치료비 지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2026년 취약계층 심장질환자 맞춤형 심장재활 공공보건사업(Heart for ALL)'을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 주관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경제적·사회적 여건으로 적절한 심장재활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 심장질환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해 심장 기능 회복은 물론 재발 예방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장재활은 심부전,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장질환 환자 및 심장 수술 환자가 급성기 치료를 마친 후 전문 의료진의 감독 아래 안전하게 운동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심장기능을 회복하는 치료 프로그램이다.

임상적으로 심혈관 사망률을 42% 감소시키고, 심부전 재입원율을 31%, 심근경색 재발률을 28% 낮추는 등 재발 위험 감소와 신체 기능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증명됐

다. 전북대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심폐운동부하검사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심폐 운동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개인별 맞춤형 운동을 처방한다. 특히 운동 중에는 심전도와 혈압, 심박수 등 의료진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환자의 상태에 맞게 운동강도를 조절하며 안전하게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공보건사업은 전북대병원 심장내과 임원 또는 외래 환자 중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중위소득 120% 이하인 대상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심폐운동부하 검사 1회와 심장재활 치료 1회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심장재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참여 절차는 심장내과 전문의가 재활의학과로 협진을 의뢰한 후, 소독 기준 서류 확인 및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료·평가를 거쳐 맞춤형 심장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정소민 기자

“팜스테이마을에서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세요!”

전북농협 도농교류 활성화... 농촌체험 휴양 기회 제공

전북농협-전북팜스테이마을협의회는 지난 7일 팜스테이마을에서 여름 휴가 보내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 도시민에게 농촌체험과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팜스테이마을을 찾도록 하고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도농교류 활성화 추진에 앞장서고자 전북농협과 전북팜스테이마을 위원장·사무장을 중심으로 기획했다.

행사에는 전북농협과 전북팜스테이마을 위원장·사무장 등 30여명이 참여해 관광객들에게 팜스테이마을의 위치가 삽입된 부채와 로고가 새겨진 키캡 키링 등 기념품과 생수를 배부하며 전

북의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및 휴양 정보를 홍보했다.

또 풍남관광장에서 경기전까지 이동하며 가두 홍보를 펼치면서 전북팜스테이마을을 인스타그램 팔로우 요청을 하는 등 팜스테이마을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 농촌관광과 함께 고향사랑기부제도 함께 홍보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전북 지역이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담례품 혜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제도임을 널리 알렸다.

최광식 회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전북지역 팜스테이마을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자연친화적인 농촌의 따뜻한 정과 특별한 추억을 함께 만들어 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성훈 본부장은 “팜스테이는 단순한



<사진=전북농협>
숙박이 아닌 농촌의 삶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농촌관광 종합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이와 “이번 여름휴가는 전북팜스테이마을에서 행복하고 유쾌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농촌에도 활력을 주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팜스테이마을을 홍보는 전주 풍남관광장과 한옥마을 일대에 마련돼 진행됐다.

/김영태 기자

국가농경지농작물 관측에 농림위성 ‘가동’

농업특화 위성정보 확보 수급·농업재해 대응 빨라져

국내 최초 농업·산림 분야 관측용 국가 농림위성이 성공리에 발사되며 농산물 수급·농업재해 대응 정보 등이 빨라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세대중형위성 개발 방향 및 전략 연구에 농림위성 수요를 제안했다.

이후 주요 작물 생육 분석, 벼 재배 면적 추정 등 농업 원격탐사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한 2024년도 ‘농업위성 센터’가 신설됐다.

8일 농촌진흥청은 우주항공청, 산림청과 함께 개발한 차세대중형위성 4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농경지 이용 변화와 농작물 재배 현황을 더 정밀하고 신속하게 3일 주기 관측을 점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우리 농업 특화 위성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기반이 마련됐다.

관측 영상은 농촌진흥청이 그동안 축적한 인공지능(AI) 분석기술을 이용해 기상·공간·현장 정보 등과 융합된 후 농작물 재배면적, 생육 정보, 농경지 변화 등 다양한 농림위성정보로 생산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한 농림위성정보는 주요 농작물 작황 정보 생산으로 선제적·자율적 수급 관리 농경지 분석 정보 생산으로 공익직불 기반 소득안정 전망 강화 농업재해 위험관리 정보 생산으로 농가 경영 안전망 확보 등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된다.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농림위성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가 농업 분야 특화 국가 위성을 확보하고, 전국 농경지와 농작물을 상시 관측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위성센터는 농림위성 운영과 농업관측 정보 활용 연구를 수행하며 앞으로 생산될 농림위성정보를 서비스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국산 잡곡 황금비율’ 구명

국민 건강과 식품 산업 키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동의보감’에서 질병을 다스리는 ‘약곡(藥穀)’으로 기록된 국산 잡곡의 건강 가치를 현대 과학으로 구명하고, 항당뇨·항고혈압 효과 극대화 ‘황금 혼합비율’을 찾아내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화와 만성질환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특수의료용도식품(메디푸드) 및 고령친화식품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이번 연구 성과는 국산 잡곡의 산업적 가치를 한 단계 끌어올릴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2019년부터 공동연구를 통해 항당뇨·항고혈압 효과가 우수한 국내 잡곡 원료를 선별하고,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혼합비율을 설정했다.

연구진은 귀리 ‘대양’, 손가락조 ‘핑

기1호’, 수수 ‘소담찰’, 팥 ‘아라리’, 기장 ‘금실찰’ 등을 우수 품종으로 선별했다. 이어 최적 비율을 적용한 혼합잡곡으로 동물실험 한 결과, 혈당 개선(공복혈당 22% 감소) 및 혈압 강하(수축기혈압 20% 감소) 효과를 확인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상업적 성과로 이어져 현재까지 10건의 기술이전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음료)과 고령친화식품(냉동밥)을 비롯해 혼합곡, 산식·죽·과자·떡 등 15종의 다양한 가공 제품이 출시됐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잡곡의 소비를 늘리고 관련 산업을 앞당기기 위해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식품업체에는 고품질 국산 원료를 공급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작목별 적합 재배 지역을 발굴해 현장 실증 연구를 추진하며 기술이전 업체와 협력해 홍성(팥), 강진(귀리) 등 계약재배 생산단지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공식품 출시를 추진하고, 원료 품질관리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국산 잡곡을 배합한 고급(프리미엄) 제품의 시장 안착과 소비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김병석 원장은 “국산 혼합 잡곡 및 기능성분 고함유 쌀 등 다양한 식량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을 확대하고, 건강식품 시장을 선점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비자와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종자에서 식탁까지(Seed to Table) 이어지는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주기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산 식량작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농협>

“농협이 하고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알자!”

농협측 신규직원 정체성 함양 교육 신규직원(64명) 대상으로 “농협이 하고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알자!” 정체성 함양교육이 실시됐다.

교육은 ‘대한민국 로컬푸드 메카’ 용진농협에서 농·축협 사업 이해도 증진과 앞으로의 방향 등의 목적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은 강사로 초빙된 용진농협 ‘이중진 조합장’의 선배 및 개척자로서의 열띤 강의는 신규직원들의 눈길을 끌었다.

이중진 조합장은 대한민국 최초 로컬푸드 1호점을 개설해 전국으로 확산시

킨 과정, 용진농협 제15대 조합장이 되기까지의 경험을 생동감 있게 강의하는 등 농협 사업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향후 나아가갈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후 선배와의 대화 시간에는 2025년 상반기 임사자 최수빈 계장보(용진농협)가 임사-적응-사업추진-우수직원 등극까지 과정과 노하우를 전수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성훈 본부장은 “금년 정체성 교육을 통해 농협 조직의 비전과 핵심가치, 농협사업에 대한 이해도 증진, 나아가 농심전심(農心天心)을 구현하고 전북 농협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

장기요양요원 성장&심 행사 개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전북도청에서 전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와 지역사랑성금 400만원 전달식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은행지역사랑봉사단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지역사랑성금으로 지난 4월 총 지원규모 6000만원 상당의 ‘2026년 지역사랑성금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총 15개 기관을 선정하고 이 날 첫 번째 기부금 전달식을 실시했다.

전북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장기요양요원의 직무 스트레스 완화 및 정서적 치유를 지원하고, 현장의 따뜻한 순간을 도민들과 공유해 돌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하고자 ‘찰라!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 사진 공모전 사업을 제안해 선정됐다.

이번 지원으로 센터는 요양보호사의 날을 기념하며 지난 7일 개최한 ‘장기요양요원 성장&심’ 행사에서 장기요양요원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담은 사진 우수작품 16점에 대한 시상식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전북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정현미 센터장,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 노조간부 전원, 전북은행 정영민 전북특별자치도청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은 “전북은행 직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노인 돌봄 현장에 대한 관심 증대와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중소기업 제도약 지원 대책’ 발표

중기부는 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결정·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제도약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중소기업은 성장 둔화와 수익성 악화 등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총 이자비용)이 1 미만 상태인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등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KODATA)에 따르면 한계중소기업 비중은 2020년 6.5%에서 '22년 7.9%로 2024년에는 8.8%까지 지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한 국 평 가 데 이 터(KODATA)를 통해 재무정보 확인이 가능한 법인 중소기업 약 11만개사를 분석한 결과, '24년 기준 절반가량인 55,000개사가 성장과 재무 측면에서 위기를 겪거나 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3년 평균 매출증가율이 0 미만인 성장위기 기업이 39.3%,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재무위기 기업이 25.5%였으며, 이 중 14.8%는 성장·재

무위기가 동시에 발생한 복합위기 기업이었다.

재무위기 기업 중 한계기업(9,700개사, 전체 8.8%)의 45.0%는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 적기에 구조개선을 지원할 경우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위기상황이 장기화되기 전에 조기에 탐지해서 알리고, 성장성과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새로운 제도약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위기 조기경보 및 위기상황 종합진단 등 선제적 대응 △재무 위기기업 구조개선 및 회생 지원 강화 △성장 위기기업 유망사업 전환 촉진 및 성공 지원 △제도약 위한 제도·인프라 뒷받침 등이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 이행을 뒷받침하는 제도약 지원예산이 확대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연내 제도를 추진한다.

/김영태 기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본격 시행

24만원 상당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되며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해 임산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동 사업은 2020~2022년 동안 시범사

업으로 추진했으며 매년 임산부 8만명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한 바 있다.

과거 시범사업에 참여한 임산부들의 만족도가 높고,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수요처를 제공한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 2026년부터 재추진하게 됐다.

올해는 전국의 임산부 16만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자기 부담금 48,000원으로 2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구입할 수 있다.

꾸러미 주문 금액의 80%는 정부 지원금으로 결제하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꾸러미로 공급하는 품목은 정부 인증 제도로 관리되는 농식품으로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및 유기농공식품, 유기수산물, 유기수산물 등이다. 올해 공급하는 필수 공급품목 수는 55개 품목으로 과거 시범사업시 공급 품목수(35개 품목)보다 20개 품목을 더 늘려 임산부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기준 임신

부이며, 소득수준이나 영양상태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임산부는 사업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코이몰’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임산부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의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별 꾸러미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임산부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자격 검증 후 최종 선정된 임산부는 오는 20일부터 온라인으로 꾸러미를 주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 고성원 교수 '혈액투석용 인공혈관' 국산화 참여

산·학·연·병 협력 통해 전량 수입 의존 필수 의료기기 기술 자립 추진

전북대학교는 기계설계공학부 고성원 연구교수가 '2026년도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필수 의료기기 분야 신규 과제인 '나노섬유 구조 기반 혈액투석용 비중심순환 인공혈관의 국산화 개발'에 공동연구 책임자로 참여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비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필수 의료기기의 기술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기기 기업 (썬아이메디텍이 주관하고, 전북대와 서울아산병원, 엑슬리나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나선다. 비중심순환 인공혈관은 정맥과 동맥 등 혈관 일부를 치환하는 데 쓰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분류상 3등급(고위험군) 의료기기로 국내 생산 기반이 부족해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해 왔다. 과제 목표는 국산화 제품 개발부터 식약처 인증·허가, 특허 등록 및 사업화 전 과정의 완료다. 고 교수는 과제 내에서 전북대가 보유한 코팅용 전기

방사장치 기술을 활용해 인공혈관 표면에 생체적합성 나노섬유를 적용하는 코팅 기술 개발과 최적화를 담당한다. 인공혈관 표면에 나노섬유 구조를 적용하는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제품 성능 및 안전성 평가는 비임상 시험관리기준(GLP) 인증 기관인 전북대 혁신의료기기 비임상센터가 공동 수행해 인허가를 지원한다. 고 교수는 "생체적합성 나노섬유 코팅 기술을 적용해 안전성과 성능을 확보한 국산 제품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고성원 연구교수

군산대 정영우 '순창오픈종합정구대회' 은메달

개인단식 메달 획득

군산대학교 정구부 정영우 선수가 맹활약하며 자신의 기량을 뽐냈다.

지난 7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막을 내린 '2026 순창오픈종합정구대회'에서 군산대 정영우가 개인단식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대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인도와 필리핀, 일본, 베트남, 몽골 등 9개국 선수가 참가, 남자 단식·복식, 여자 단식·복식, 혼합복식 등 5개 세부종별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개인단식 부문에 출전한 정영우는 예선 라운드에서 2위로 결선에



진출, 파죽지세로 결승전에 진출했다. 그러나 결승전에서 만난 이천시청 선수에게 2대4로 아쉽게 석패하며 값진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군산대 정구부 최영하 감독은 "이 기세를 몰아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정철 기자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11일 개최

e스포츠 경기부터 게임체험·레이저태그까지

군산시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군산월명체육관에서 '2026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및 지역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선수와 관람객,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

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대회는 리그 오브 레전드와 발로란트 본선 및 결승전, 브롤스타즈 현장대회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된다. 특히 마인크래프트 종목은 게임 속 가상공간에 군산의 대표 명소와 풍경을 직접 구현하는 '군산시 만들기'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군산의 문화와 관광 자원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경쟁하게 되며, 지역의 특색을 게임 콘텐츠와 접목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관심을 모으

고 있다. 이와 함께 행사장에서는 아케이드게임, 보드게임, 게임 체험존, 레이저태그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행사는 식전공연과 개회식을 시작으로 e스포츠 본선 및 결승전, 시상식, 경품추첨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행사 중 두 차례의 경품추첨을 통해 참가자와 관람객

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e스포츠는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문화콘텐츠이자 미래 성장산업"이라며 "이번 대회가 청소년과 시민들이 건전한 게임문화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이 되길 바라며, 특히 마인크래프트 '군산시 만들기'와 같은 특색 있는 콘텐츠를 통해 군산의 문화와 관광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가요전시관 새 단장

17일 재개관식·18일 정식운영

정읍시가 백제가요 정읍사를 주제로 꾸민 '한국가요촌 달하' 가요전시관 재개관식을 오는 17일 열고 18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17일 달하 야외공연장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재개관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순으로 이어진다. 이날 행사를 기념해 정읍시 홍보대사인 가수 박창근이 출연하는 '달하음악정원 가요콘서트'도 열려 방문객에게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새롭게 바뀐 가요전시관은 총 20억원(도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투입해 꾸렸다. 내부는 현존하는 유일한 백제가요 정읍사와 이를 궁중 가악곡으로 전승한

수제전을 주제로 한 '정읍사' 전시, 우리 가요의 변천사를 다루는 '달하악당(樂堂)' 전시실로 나뉜다. 관람객은 다채로운 체험형 전시물을 통해 정읍사의 역사적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한국 가요의 흐름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다. 전시관 주변 수국정원에는 여러 색깔의 수국이 꽃을 피워 풍성한 볼거리를 더한다. 관람객들은 전시를 감상한 뒤 만개한 꽃이 어우러진 풍경을 즐기며 추억을 남길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재개관으로 정읍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널리 알리겠다"며 "한국가요촌 달하를 정읍 대표 관광 명소로 육성해 체험형 관광객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 하반기 힘찬 출발

육상·펜싱팀 메달 획득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입상하며 하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백제왕도 익산 2026 전국 육상경기대회'와 제64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익산시청 직장운동경기부가 금메달 2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4일부터 8일까지 익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백제왕도 익산 2026 전국 육상경기대회'에서는 육상팀 선수들이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여자 해머던지기 한국기록 보유자인 김태희 선수는 4일 열린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고, 이어 6일 열린 여자 5,000m 경기에서는 오혜원 선수가 정상에 오르며 금메달을 추가했다. 익산시청 육상팀은 안방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전국 정상급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펜싱팀도 지난달 30일부터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제64회 전국남녀종별펜싱선수권대회'에서 입상 소식을 전했다.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 출전한 최신희·최지영·박주미·김윤서 선수는 2일 동메달을 획득했다. 선수들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값진 성과를 거뒀으며, 여자 사브르팀은 올해 전국대회 두 번째 입상 기록을 이어갔다. 익산시 관계자는 "선수들의 노력과 열정이 좋은 성과로 이어져 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며 "우리 선수들의 기본 좋은 질주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부안군 '할미할비 동시학교' 참여자 모집

동시와 그림으로 삶 기록

부안군문화재단은 어르신들의 삶과 동시를 동시와 그림으로 담아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할미할비 동시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

'할미할비 동시학교'는 텃밭의 식물과 계절의 변화를 관찰하며 자연 속에서 감성을 키우고, 사투리와 추억, 삶의 이야기를 동시와 그림으로 표현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며, 문화과 예술을 매개로 새로운 창작의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1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석정문화관에서 총 8회 과정(참가비 무료)으로 운영된다. 모집대상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시니어(만60세 이상) 14명 내외이며, 신청은 오는 15일까지 전화로 가능하다. /부안=신상수 기자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이 직접 창작한 동시와 그림을 엮어 한 권의 동시집으로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완성된 작품은 제4회 한국동시축제 기간 중 성과 전시를 통해 선보일 계획으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동시를 매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안군문화재단 관계자는 "동시에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신의 마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는 문학"이라며 "참여자들의 소중한 삶의 이야기가 동시와 그림으로 기록되고, 한 권의 책과 전시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공감하는 특별한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문화재단 누리집과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거나, 부안군문화재단 지역문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남원시 '전국춘향미술대전 시상식' 성황

200여 명 참여

남원시가 주최하고 (사)한국미술협회 남원지부가 주관한 제40회 전국춘향미술대전 시상식이 지난 4일 춘향문화예술회 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시상식은 수상자, 문화예술 관계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로 40회를 맞은 전국춘향미술대전에는 공예 124점, 캘리그래피 106점, 서양화 99점, 서예 84점, 한국화 37점, 문인화 36점 등 총 486점의 작품이 출품됐다. 종합대상에 이미정 작가의 공예작품

'역동적 파도의 시간'이 선정됐으며, 부문 대상은 김희옥 작가의 서양화 '해석된 꽃의 정원 1', 한광수 작가의 캘리그래피 '부고개'가 수상했다.

시상식에는 이성호 부시장, 한명숙 의장, 도·시의원,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해 수상자들을 축하했다.

이성호 남원시 부시장은 "전국춘향미술대전은 40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남원의 대표 문화예술 행사"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술 공모전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호우대비 행동요령 5가지



자주물에 잠기는지역, 산사태 위험지역등의 위험한곳은피하고 안전한곳으로 대피 합니다



산과 계곡등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않고, 안전한곳으로 대피합니다



실내에서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 하지않고, TV, 라디오, 인터넷을통해 기상상황을 확인 합니다



공사자재가 넘어 질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등 침수위험지역은 급류에 휩쓸릴수 있으니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 중대재해 순회 설명회 개최

군산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공동으로 지난 7일 군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 중대재해 대응 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법적 의무 이행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기업들이 중대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절차, 기업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의무사항, 사고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중심으로 실무에 필요한 내용을 설명했다.

특히 이번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와 군산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업 지원 교육으로, 지역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안전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익산 여름철 안전 강화 2(題)

군산시, 농기계 안전교육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여름철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과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농기계 현장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농업인과 여성·고령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인평생학습센터에서 진행됐다.

여름철은 폭염 속 장시간 농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집중력이 저하돼 농기계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다. 특히 무리한 작업과 안전수칙 미준수는 전도·끼임 등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농업인의 안전의식과 올바른 작업 습관이 중요하다.

이 센터는 여름철 운영 질한 예방과 응급 대처요령을 비롯해 농기계 안전사고 사례를 통한 예방교육, 농기계 사용 및 농작업 안전관리, 중소형 농기계 상·하차 안전실습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실제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을 병행해 교육 효과를 높였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여름철에는 폭염과 농기계 사용이 겹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셀프주유소 집중점검

익산소방서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유증기 폭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는 8월 말까지 관내 셀프주유취급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친환경 자동차 보급 등으로 전체 주유취급소는 감소 추세이나, 인건비 상승 등으로 셀프주유취급소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관내 셀프주유소 비율은 2021년 전체 주유소 166개소 중 25.9%(43개소)에서 5년 새 전체 157개소 중 44.5%(70개소)로 크게 늘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소방서는 관내 셀프주유취급소 73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단원이

현장을 방문해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설비 기준 준수 여부 △ 위험물 저장·취급 기준 준수 여부 △ 정기점검 이행실태 등이다. 특히 휴가철 이용객 증가에 따른 심야 시간대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자 근무 실태를 확인하는 야간 불시점검도 병행한다.

김상준 대응예방과장은 "주유취급소 관계인은 물론 주유소를 이용하는 시민들께서도 주유 전 정전기 패드 접촉, 주유소 내 흡연 금지 등 안전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사진=정읍시>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 경로당에 성금 기탁

실무 중심 대응 역량 강화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가 8일 내장상동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고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주민 밀착형 복지를 실천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정읍시지부는 그동안 정읍 지역 교육 발전을 비롯해 취약계층 지원, 소외 구역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기탁금은 어르신들이 평소 즐겨 찾고 소화하기 편한 맞춤형 간식을 구매하는 데 쓰인다.

오경이 동장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농협은행 정읍시지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관내 37개 경로당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 건강한 간식을 정성껏 준비해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13~16일 '한의학 건강증진' 참여자 모집

익산시가 시민들의 건강한 노후와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한방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익산시 보건소는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하반기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령과 건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한의학 건강관리 사업으로, 내달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안방으로 관절 튼튼 등 3개 과정이다. 갱년기 관리와 골관절 건강 증진, 중풍·심뇌혈관질환 예방 등을 주제로 한의학 건강관리와 신체활동을 접목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프로그램별로 한의학 교육과 기공체조를 운영하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방법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또한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스트레스트 자기검사와 정신건강 상담 연계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을 방문한 뒤 상담을 거쳐 신청할 수 있다. 모집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정원 마감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한방진단실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군산시에 4,500만 원 후원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이 지난 8일 군산시와 '2026 희망나눔 지역복지' 협약을 맺고, 올해 복지 사업비 4,500만 원을 후원했다.

이번 협약은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금은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사랑의 공부방' 조성, 기업연합 봉사활동, 기초 소방시설 보급, 지역 사회복지시설 보수 및 물품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에 쓰인다.

특히 올해는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한 후원을 더욱 확대해 새만금초등학교 요리 프로그램 지원, 소룡초등학교 에너지 교실을 성황리에 마쳤으며, 향후 새만금초등학교 운동회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김두용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장은 "재정적 기부를 넘어, 이웃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나눔을 실천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14년간 변함없는 신뢰로 함께 준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민관이 힘을 모아 지속 가능한 복지 안전망을 만들어, 소외되는 이웃 없는 군산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군산!”

31일까지 시민대화 진행 '발로 뛰는 행정' 실천

군산시는 민선9기 출범을 맞아 시민과 직접 소통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8일 옥구읍과 옥서면을 시작으로 '새로운 군산, 시장과 함께하는 시민대화'를 진행한다.

민선9기 군산시정은 시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철학 아래 시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약속을 성과로 이어가는 책임행정을 추진한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여 확보한 재원을 시민이 체감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실용행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이 같은 시정철학은 인수TF팀 단계부터 일관되게 준비돼 왔다. 김재준 시

장은 이해하기 쉬운 조직체제와 시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조직개편의 핵심 가치로 삼았다.

또한 청년·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정책 수립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중 속의와 협의를 이어가는 시민참여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반기 또는 연 1회 정책 추진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성과보고 체계를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구현한다.

이번 시민대화는 새로운 군산을 향한 변화의 첫걸음이다. 시장이 먼저 시민 결의로 찾아가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만들어가는 '발로 뛰는 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시민대화는 시장과 시민이 마주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공개대화' 방식으로 운영되며, 관련 부서

장 배석 없이 건의 사항과 지역 현안에 대해 시장이 직접 듣고 답한다.

김재준 군산시장은 "지금 군산은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현대차 투자, 군산조선소, 새만금 첨단사업 등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기 위해 1,600여명의 직원들과 함께 한 팀이 돼 힘 없이 뛰겠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이 맞이할 성장의 기회를 시민 모두의 기회로 만들고, 그 성과를 시민의 삶으로 연결하는 것이 민선9기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잘하고 있는 정책은 더욱 발전시키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찾겠다. 언제나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의 중심에 두고 시민주권도시 군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확대

내과 의료기관 신규 참여 서비스 제공 기반 강화

익산시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택의료 지원 강화에 나섰다.

익산시는 8일 시정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신규 참여 의료기관인 김제형내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김제형내과가 사업에 새롭게 참여함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재택의료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가 병원

등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방문진료와 건강관리, 장기요양서비스를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익산시는 현재 서동한의원과 소망한의원 등 2개 한의원과 협력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엔 김제형내과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한의 진료 중심으로 운영되던 서비스에 내과 진료도 더해지면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의료 수요에 보다 폭넓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익산시는 사업 홍보와 대상자 발굴,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 행정적 지원을 담당한다. 김제형내과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방문진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익산시제가

장기요양기관협회와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익산지회는 사업 안내와 대상자 연계 역할을 맡는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민들이 익숙한 생활공간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택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의 협력으로 재택의료서비스 기반을 다져왔다"며 "내과 의료기관 참여를 계기로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디지털 농업 전환 촉진

농업인 인공지능 활용 교육 수강생 모집

정읍시가 지역 농업인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인공지능(AI) 활용 정보화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농촌 현장에 생생형 인공지능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 위주로 짜였다.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디지털 농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수강을 원하는 시민은 7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장구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읍·면 거주자는 농업인상담소에, 동 지역 거주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상 정읍에 거주하는 시민과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선발된 20여 명의 교육생은 오는 7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농업기술센터 정보화 교육장에서 총 13회에 걸쳐 수업을 듣는다.

주요 교육 과정은 인공지능의 이해와 경제 생성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사례 분석 △인공지능 기반 사업계획서 작성 △농산물 홍보 콘텐츠 기획 등 실제 영농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내용으로 채워졌다.

농촌지원과 관계자는 "인공지능은 농업인의 농산물 홍보와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들이 인공지능을 쉽게 익히고 영농 현장에 적극 활용해 스마트농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시 '여름방학 AI 교실' 운영

초등학생·학부모 대상 교육

익산시는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시청 지하 1층 AIT디지털배움터에서 'AI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4학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가족 체험형 교육으로, 생성형 AI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가족이 함께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기획됐다.

교육은 일일 체험형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는 희망 날짜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오전반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반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학생 1명과 학부모 1명이 한 팀으로 참여한다.

프로그램은 날짜별로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내달 5일 '우리 가족 AI 여름방학 플래너 교실'에서는 챗GPT와 제미니 등을 활용해 가족 여름방학 계획표를 만들고 여행 일정과 체험활동을 설계해 본다.

내달 6일 '우리 가족 그림책 작가 되기'에서는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장면별 삽화를 제작해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책을 완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내달 7일 '우리 가족 AI 크리에이터 교실'에서는 가족 응원곡 만들기 등 다양한 창작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생성형 AI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고, 가족과 함께 디지털 기술을 체험하며 올바른 AI 활용 문화를 익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내장산귀갑약수 '생활용수 전용' 전환

시민·관광객 편의 증진

정읍시가 8일부터 내장산 문화광장 내에서 음용수로 공급됐던 내장산귀갑약수를 생활용수 전용으로 전환해 가동한다.

이번 조치는 문화광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시설의 목적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예전 이름인 '내장산귀갑약수'를 '천사하어로즈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로 바꾸고 관련 안내판 정비를 마쳤다.

새단장한 급수시설은 지하 204m

3000톤, 하루 최대 200톤의 용수를 공급한다.

한 번에 최대 15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규모다.

평상시에는 방문객 편의 시설로 쓰이고, 재난이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시민 기본 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곳에서 나오는 물은 식기 세척, 세탁, 청소, 화장실 사용, 목욕 등 일상생활 전반에 활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시민이 언제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재난관리평가 '우수'

전 분야 높은 평가

군산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도 재난관리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재난관리평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전국 340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평가다.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전 과정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미흡한 분야의 개선을 유도해 국가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평가는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관리 단계별 6개 분야 45개 지표를 대상으로 2025년 재난관리 추진 실적

군산시는 시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우기를 앞두고 급경사지와 산사태 위험지역, 대형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과 하수관로 준설, 빗물받이 정비 등 사전 예방 활동도 꾸준히 실시했다. 이 같은 재난관리 성과를 바탕으로 군산시는 지난 5월 '2025년 재난관리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으며, 이번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따른 복합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난대응 매뉴얼과 재난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관계기관의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시민 참여형 안전문화운동을 확대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고창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순항'

방제약제 사전공급 맞춤형 현장지도 강화 농가 피해 최소화 총력

고창군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 사업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8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병해충 방제 사업으로 총 3억529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농가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군은 지난 2월 '농작물 병해충 예방·방제 협의회'를 열고 돌발해충, 탄저병, 토마토뿌나방, 무배추 뿌리혹병 등의

방제 약제를 선정해 농가에 사전공급을 완료했다.

특히 국가관리 검역병해충이자 발생 시 과연 폐면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과수화상병'의 경우, 선제적인 약제 지원과 상시 예찰을 통해 현재까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미발생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와 연계해 병해충예찰방제단을 꾸려 현장 예찰과 병해충 방제 기술 지도를 집중적으로 펼치고 있다.

특히 농가 피해가 우려되는 외래 해충 토마토뿌나방 발생 농가를 찾아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지도했다.

토마토뿌나방은 토마토 등 가지과 작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으로 잎과 줄기, 열매 내부를 파고들어 생육을 저해하고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번식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중 발생할 위험이 높아 철저한 방제와 사전 대응이 필수이다.

앞으로도 군은 장마철 유의해야 할 탄저병 등 주요 병해충의 발생 동향을 파악하고, 농가별 맞춤형 현장 지도를 강화해 방제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오성동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지도를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을 이룰 수 있도록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김제시>

"김제시, 체납액 징수 위해 어디든 간다"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김제시는 납부하지 않는 고액·고질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도 합동 광역징수반'을 가동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택수색은 지난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1주일간 지방세 체납액 5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김제시 밖에 거주해 그동안 현장 징수활동이 어려웠던 관의 체납자를 선제해 추진됐으며, 연초부터 집중 관리해 온 체납자 본인 및 가족의 보유 재산 현황 분석과 실거주지 추적을 통해 얻은 결과다.

시는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귀금속, 명품가방 등 동산 25점을 현장에서 압류했으며, 압류 물품은 감정평가 후 전북특별자치도 합동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최근열 세정과정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고질·고액체납자는 장소를 불문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조세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가택수색을 포함해 출국금지, 차량공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김제시, 학습·취업 지원 확대 2(題)

'달리는 모두배움터' 여정 마쳐

김제시는 전국 유일의 체험형 이동학습공간 '달리는 모두배움터' 사업의 2026년 상반기 순회교육을 계획대로 50개 마을에서 모두 마무리하고, 750여 명의 주민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며 성공적으로 운영을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형버스를 교육 목적에 맞게 전면 개조해 만든 이동형 평생학습공간이 읍·면 지역 마을을 직접 찾아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지난 5월 제월동 반월마을을 시작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뚜렷한 읍·면 소재 50개 마을을 순회했다. 강사은행제에 등록된 지역 평생교육강사들이 직접 버스에 탑승해 문화·체육·건강 등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을 주민 수요에 맞춰 운영했으며, 특히 그동안 시내까지 이동하기 어려웠던

습 기회에서 소외됐던 고령 주민들의 높은 호응 속에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마쳤다.

시는 지역에 내 평생학습자원을 공유·활용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읍·면 주민이 동등한 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입증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까지 읍·면 지역 140개 마을을 누빈 데 이어 김제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교육부 '평생학습집중진흥지구 사업'과 연계해 국도비 지원을 통해 30개소를 추가 운영해 연내 1,200명에게 학습참여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어 '달리는 모두배움터' 사업이 지역소멸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노력이 평생학습 실행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미니 채용 박람회' 개최

김제시는 여성세로일하기 센터(이하 세일센터)가 8일 김제고송센터 공동교육관 1층에서 직업교육훈련생과 지역 구인기업 간 현장 중심 취업 연계를 위해 '2026년 김제여성세일센터 미니 채용 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배움에서 채용으로, 내 일 'My Job'의 행복 디자인"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직자와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현장면접과 다양한 취·창업 컨설팅 등 채용 기업과 구직 여성에게만 온전히 집중하는 2시간의 밀도 높은 행사로 기획됐다.

채용관에서는 직업교육훈련 유관직종인 사회복지 분야(요양원·복지관 등), 사무직 분야(경리·사무보조), 급식·식품 분야(단체급식) 등 다방면에서 현장 면접을 진행하며 직접 참여 기업 외에도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간접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운곡습지·고인돌유적 순환버스 운행

내달까지 무료 시범운영 9월 정식 운영 돌입

전북 고창군이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을 더욱 편리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순환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순환버스는 운곡습지 주차장(운곡서원길 15)과 고인돌박물관 주차장(고인돌공원길 75)을 연결한다. 평일에는 편도 4회, 주말 및 공휴일에는 편도 7회 운행된다.

탐방객들은 운곡습지를 따라 여유롭게 걸으며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한 뒤 순환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출발지로 돌아올 수 있다.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인 탐방 동선이 마련됨에 따라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을 연계한 관광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순환버스는 오는 8월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된다.

버스 내 QR코드를 활용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탐방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 오는 9월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버스 외관은 운곡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을 수채화 감성으로 표현해 친근함을 더했다.

또한 차량 내부에서는 세계유산도시 고창의 역사·문화·관광자원을 소개하는 홍보영상상을 상영해 이동 시간 동안 고창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순환버스 운영을

통해 탐방객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운곡습지와 고인돌유적을 보다 여유롭고 즐겁게 둘러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방문객 중심의 탐방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운곡습지와 고창 고인돌유적은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2023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핵심 명소로 지정됐다. 고창 고인돌유적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고인돌 군락지 가운데 하나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있으며, 운곡습지는 자연복원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국내 대표 탐사습지로 보호받고 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의회, 호국영령 참배로 의정활동 시작

의원 14명 전원 군경묘지충혼탑서 헌화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 8일 오전 순동 군경묘지와 충혼탑을 찾았다.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공식 의정활동으로, 나라를 위해 산화한 순국선열 앞에서 뜻을 여미며 의정활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참배에는 이정자 의장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함께했다. 굿은 날씨 속에서도 발걸음을 옮긴 의원들은 당초 예정됐던 참배 일정을 헌화로 갈음해 예를 갖췄다.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의회는 곧바로 호국영령 앞을 찾아 현장 의정활동의 첫발을 뗐다. 의원들은 순국선열들이 잠든 묘역 앞에 나란히 서서 헌화하고 고개를 숙이며, 오늘의 김제를 있게 한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새겼다.

이정자 의장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애국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낮은 자세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겠다"고 말했다.

김제시의회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호국영령을 기리는 활동을 이어가며, 부훈 정신을 의정활동 전반에 새겨 나갈 방침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 정기 간담회 성황

'근농장학금' 적극 홍보

부안군귀농귀촌협의회는 지난 7일 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귀농귀촌협의회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월 정기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청소년과 이세욱 평생교육팀장이 부안군의 대표적 교육복지 정책인 '근농장학금'을 적극 홍보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어 농업기술센터 생활지원팀 김영미 팀장이 주재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교육'에서는 본격적인 무더위철에 대비한 여름철 운영질환 예방 수칙과 맞춤형 생활 안전 수칙을 집중적으로 전달했다.

특히 간담회에 참석한 권익현 부안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권군수는 "부안군에 터를 잡은 귀농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향후 부안군 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제도적 기반과 환경을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강조해 참가자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행사를 주관한 이성기 귀농귀촌협의회장은 "매달 진행되는 간담회를 통해 회원 간의 화합을 다지고, 군의 유익한 정책과 안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부안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귀농귀촌 정착 성공 사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재활사업' 추진

신체·인지·심리 통합케어

김제시는 관내 뇌병변 장애인의 독립적인 일상생활과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뇌병변 장애인 맞춤형 재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뇌병변 장애인의 개인별 특성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신체적 재활뿐만 아니라 인지 재활과 심리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다.

사업은 보건소에 등록된 대상자를 중심으로 약 5개월간 주 2회에 걸쳐 재활보건팀 인력 4명이 투입돼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활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에 따른 재활서비스로는 근력과 유연성을 높이는 PNF(고유수용성신경근축진법), 자세 교정에 탁월한 슬링 운동, 통증 및 마비 부위 회복을 돕는 전기치료, 작업치료, 언어관리, 일상에서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주 1회 화상운동지도 및 운동영상 공유하고, 뇌파 조절을 통한 기억력·집중력 훈련과 우울증 관리도 지원한다.

이영성 치매재활과장은 "뇌병변 장애인들이 하루 빨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방문재활, 재활운동실 운영 등 기존사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앞으로도 지역 내 장애인들의 재활 요구에 부응하는 촘촘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주말 도자기 프리마켓 운영

부안군은 지역 도예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부안청자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최근 부안청자박물관 광장에서 '역사와 예술이 만나는 주말, 도자기 프리마켓'의 첫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부안도예가협회 소속 지역 도예인들이 참여해 다양한 도예 작품을 전시·판매했으며 작가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며 작품에 담긴 제작 과정과 창작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 물레 시연과 도예 체험 등 다양

한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가족 단위 방문객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전통 도예를 직접 보고 체험하며 구매까지 할 수 있는 문화장터로 운영돼 부안 도예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지역 도예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부안 도예문화의 경쟁력 강화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 김수일·김순조 부부 인재육성장학금 600만원 전달

부안군 부안읍 명당마을에 거주하는 김수일·김순조 부부가 지난 7일 (재)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에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600만 원을 기탁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김수일·김순조 부부는 2015년부터 CMS 정기후원과 일시기탁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학생들의 꿈을 응원해 왔다.

이번 기탁을 포함한 누적 기탁금은 총 4,720만원에 달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김수일 씨는 "지역의 미래는 우리 아이들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더 큰 꿈을 품고 학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 관계자는 "오랜 기간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지역 인재 육성에 동참해 주신 김수일·김순조 부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11년 동안 이어진 따뜻한 나눔은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자 귀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 진봉면 지사협 상반기 사업 추진 성과 공유

김제시 진봉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최준영) 위원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2026년 상반기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3분기 특화사업인 '사랑의 산계탕 및 밀반찬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해당 사업은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지원하고 안부를 살피는 사업으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의체 위원의 인기 말로에 따라 새로운 임원진과 위원을 구성하고, 앞으로 2년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이끌어갈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새롭게 출범한 협의체는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등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최준영 위원장은 "앞으로 위원들과 함께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해 따뜻한 진봉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사회위기 대응 치유 프로젝트 '터치유' 운영자 모집

고창문화도시센터(센터장 이문식)가 지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기를 문화예술로 대응하는 2026 사회위기 대응 치유 프로젝트 '터치유' 운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터치유'는 지난해에 이어 추진하는 사회위기 대응 치유 프로젝트다.

올해는 "2026 고창 사회위기 대응 문화정책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주요 사회위기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치유문화예술 프로젝트를 발굴·운영한다.

공모를 통해 5개팀을 선정하며, 선정된 팀에는 팀별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공모 분야는 초고령화, 청년인구 감소, 기후위기, 장애인, 다문화 가정, 신·구 주민 간 갈등 등 총 6개 분야다. 전시·공연·연극·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서는 고창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문식 센터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군민이 체감하는 사회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양충모 남원시장, 국가예산 확보 총력

국회 찾아 현안사업 지원 요청 박희승 의원 등과 잇단 면담 국립의전원 등 핵심사업 건의

양충모 남원시장은 8일 국회의를 방문해 박희승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과도 잇따라 면담을 갖고, 2027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주요 사업에 대한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남원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국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부예산(안) 반영은 물론, 향후 국회 심의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양 시장은 여러 국회의원을 만나 남원시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희승 의원과 면담해 지역발전 핵심사업들이 정부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지원을 요청했다.

중점 건의사업은 △국립의전원대학원 설립(640억원),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161억원),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180억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1,127억원), △국시지구 배수개선사업(66억2,200만원), △차세대 식물엑스포 기술 및 표준화 개발사업(312억원), △하도지구 풍수해생태권 종합정비사업(396억원), △입암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242억원), △남원 경찰수련원 건립(400억

원) 등으로,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 구축과 정주여건 개선, 재해예방, 교통망 확충, 바이오산업 육성 등 남원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들이다.

양충모 시장은 “국가예산은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대응하는 것보다 편성단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정부예산안이 기획예산처 심의 단계에 있는 만큼 중앙부처와 기획예산처를 지속적으로 방문해 예산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하며 쌓은 예산편성 경험과 중앙부처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남원의 핵심 사업들이 정부예산(안)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필리핀 미나시와 농업협력 확대

미나시 대표단 공식 방문 계절근로자운영 협력 강화

완주군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국인 필리핀 일로일로주 미나시(Mina)시 대표단을 맞아 본격적인 교류 일정에 들어갔다.

필리핀 미나시 부시장을 비롯한 10명의 대표단은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완주군을 공식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대표단의 전체 방문 일정(7월 5일~11일) 중 양 지자체 간 상호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핵심 일정으로 편성됐다.

이번 초청은 미나시와의 우호 교류 증진과 상호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대표단은 완주군 농업 현장 시찰에 동행해 현지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과 복지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미나시 대표단은 완주군과 함께 한층 더 체계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관리 방안을 논의하며 근로자 선발부터 입국, 근무, 출국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협조 시스템을 공고히 해 무단 이탈 없는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할 방침이다.

유히태 완주군수는 “우리 군 농업 일손에 큰 보탬이 되는 미나시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대표단 방문을 통해 근무 환경과 복지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양 지자체 간의 고도화된 인력 관리 협력 모델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농협 완주군지부·운주농협 취약농가 주거환경 개선

농협 완주군지부(지부장 원천연)와 운주농협(조합장 정성권)은 관내 고령 취약농가를 대상으로 ‘NH농촌환경봉사단’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실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NH농촌환경봉사단’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농업인행복콜센터(1522-5000)’를 통해 접수된 돌봄대상자 중, 노후화된 주거 환경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고령 취약농가를 발굴해 지원하는 농협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날 지원을 받게 된 운주면의 한 농가는 노후화로 벽지와 장판이 심하게 훼손돼 생활에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NH농촌환경봉사단은 전문 시공업체와 함께 노후된 도배와 장판을 전면 교체해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

운주농협 정성권 조합장은 “깨끗하고 안락한 주거 공간을 마련해 드릴 수 있어 뜻깊다. 앞으로도 농심천심(農心天心)의 마음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 완주군지부 원천연 지부장은 “앞으로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제10대 완주군의회 출범...5대 의정 방향 발표

경제·복지·자치 비전 제시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집중”

제10대 완주군의회(의장 성중기)가 ‘군민을 지키는 의회, 미래로 나아가는 의회’를 새로운 의정 비전으로 선언하고, 앞으로 4년간 군민 중심의 책임 의정을 펼쳐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완주군의회는 8일 완주구청 브리핑룸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제10대 의회의 비전과 다섯 가지 핵심 의정 방향을 발표하며 새로운 의정활동의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성중기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0대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뜻을 가장 먼저 듣고, 군민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며, 완주의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10대 완주군의회는 핵심 의정 방향으로 △민생과 미래를 주도하는 경제 의회 △주민의 삶에 밀착하는 안전한 복지 의회 △완주의 자존심을 지키는



<사진=완주군>

키는 군민 우선의 자치 의회 △군민의 뜻을 받드는 생산적 균형 의회 △대안을 제시하는 실력 있는 정책 의회를 제시했다.

완주군의회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스마트농업 지원,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수소 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돌봄환경 조

성, 학생 통학환경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생활환경 개선 등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강화하고,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치 의정과 책임 있는 예산·결산 심사, 정책 중심 의회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오는 10일 첫 번째 의정간담회를 열고, 제302회 임시회 회기일정과 안건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노인일자리 어르신 감염병 예방 나서

11개 읍·면 순회 예방교육 진드기매개질환 집중 안내

순창군은 지난 7일 팔덕면 체육관에서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190여 명을 대상으로 진드기매개질환 예방 등 각종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농작업과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수칙 실천을 생활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28일까지 11개 읍·면 문화복지센터와 체육관 등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진드기매개질환 예방의 주요 증상과 예방수칙을 비롯해 결핵 예방을 위한 조기 검진의 중요성, 일상 속 감염병 예방수칙 등을 중

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진드기매개질환은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중 풀밭 등에 서식하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보통 2주 이내 발열과 오한, 구토, 설사,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대표적 질환으로 꼽히는 쯤쯤가부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순창군보건소의료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 등 감염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유가공 안전인증 획득...경쟁력 강화

제2농산물가공센터 HACCP 획득 지역 낙농부가가치 향상 기대

순창군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부터 신선하고 안전한 유제품 생산을 위한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을 취득하며 지역 낙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에 획득한 HACCP 인증은 원유의 입고부터 살균, 포장, 보관, 출하까지 유가공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차단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안전한 유제품을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현재 순창군은 단순 원유 생산에 머물러 있던 낙농업의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인의 가공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농가들이 직접 신선한 원유와 생크림을 활용해 밀크젯을 생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낙농업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다.

특히, 유제품은 온도 변화와 미생물에 민감하여 일반 가공식품보다 훨씬 까다로운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이번 기타젯 인증은 제2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이러한 엄격한 품질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갖추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결과다.

가공창업연구회 고문인 변수기 대표는 “이번 가공센터의 HACCP 인증은 우리 순창의 낙농가들이 원유 납품을 넘어, 고부가가치 유제품을 담당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철저한 위생 관리를 바탕으로 낙농업자의 역량과 제2가공장의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유제품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낙농가의 소득 증대와 순창 유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우선 폐차 지원

하반기 사업 13일부터 접수 건설기계도 지원 포함

완주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를 끝으로 보조금 지원이 종료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를 우선 지원하는 ‘하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총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이번 사업의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군은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5등급 차량을 하반기 사업에서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잔여 예산이 발생하면 4등급 차량을 지원할 방침이다. 5등급 차량은 경우 외의 번호를 사용하는 차량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지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접수일 기준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소유자의 최종 소유 기간 역시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지방세 등의 체납 사항도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해 산정된다. 차량별로 지원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완주군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군민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완주군청 지원순환과(6층)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첫 적극행정 공로 ‘옥조근정훈장’ 수훈

심남옥 의약검진팀장 ‘영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성과’

남원시는 보건소 심남옥 의약검진팀장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공동 주관 ‘제6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 수여식에서 적극행정 유공 정부포상인 옥조근정훈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옥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이번 수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원시가 추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과정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실제 운영으로 연결한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

받은 것이다.

이번 옥조근정훈장 수훈은 남원시 최초의 적극행정 정부포상 훈장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심남옥 팀장은 남원의료원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의료인력 확보와 운영방안을 조율하고, 지역 약사회 및 약국과의 협의를 거쳐 공공심야약국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을 조정하며 2025년 6월 달빛어린이병원 개소를 이끌었다.

심남옥 팀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운영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옥조근정훈



한성숙 국무총리(左) 심남옥 팀장(右)

<사진=남원시>

장 수훈은 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남원시와 의료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과를 정부로부터 인정 받은 뜻깊은 성과”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 소상공인, 35사단 백마여단과 상생 협약

군인·가족 할인 서비스 제공

육군 35보병사단(이하 35사단) 예하 백마여단은 지난 7일, ‘지역사회 발전과 장병 및 군인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남원 지역 소상공인 연합회와 부대 간의 유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군 장병 및 군인가족의 실질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고, 남원시 지역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양 기관은 △부대 장병 및 군인가족 할인 혜택 및 서비스 질 향상 △부대 주요행사 및 장병 출타 시 지역 상점 이용 장려 △지역 상생을 위한 상호 홍보활동 지원 △양 기관의

발전과 상호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했다.

아울러, 남원시 소상공인회는 가맹점 입구에 ‘군 장병(군인가족) 우대입소’ 등의 안내판을 부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고, 백마여단은 부대원 및 가족들에게 가맹점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백마여단장(대령 이승원)은 “장병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할인 혜택 등을 지원해 준 남원시 소상공인회에 감사하다”며 “백마여단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태세·능력·의지를 갖추고 남원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명감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하나은행 전주공단지점 완주군에 ‘사회공헌’ 후원금 전달

하나은행 전주공단지점이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금 300만 원을 지난 6일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이번 기탁은 하나은행이 추진하는 사회공헌활동인 ‘2026 하나지역행복나눔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기탁된 후원금은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복지 시설 등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강원 하나은행 전주공단지점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평화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지역 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하나은행 전주공단지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전달받은 후원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게 소중히 전달해 지역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호남대학교 학생들, 무주군서 농촌마을 봉사활동

무주군이 호남대학교 '지역 상생 농촌마을' 봉사활동을 지원하며 무주를 알렸다. 무주군에 따르면 호남대학교 학생과 교직원 60여 명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설천면 길산리 상길 마을에서 전공 연계 제능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의식조리학과에서는 음식 나눔을, 건축학과에서는 전선 정리, 현광등 교체 등 집수리, 뷰티 미용학과 학생들은 이·미용, 물리치료학과·간호학과·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은 보건 의료 계통의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응급구조학과에서는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 치위생학과에서는 구강 보건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무주군은 이들의 안전과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활동 장소를 제공하고 홍보 및 주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으며, 머무와인동굴 투어와 태권도원 숙박 및 체험을 지원해 호응을 얻었다.

또 무주읍상권활성화추진단에서는 '착한가게' 업소 등을 소개하며 이들이 3일간 무주에 머물면서 지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장애인체육회 2026년도 제2차 이사회 개최

임실군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하반기 주요 사업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7일 임실군장애인연합회 회의실에서 '2026년도 임실군장애인체육회 제2차 이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는 체육회장인 임실군수 주재로 진행되며,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이사 등 임원진이 함께 자리해 당면한 장애인 체육회 현안을 조율하고 하반기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상정되는 주요 안건은 관내 장애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6년 제6회 임실군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 개최의 건'이다.

한득수 임실군수는 "이번 이사회는 장애인 한마음체육대회의 내실 있는 준비와 더불어, 관내 장애인 체육 복지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 체육인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2차 참여자 모집

진안군이 청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창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2차 모집에서는 총 8개소를 선정하며, 자부담 20%를 조건으로 개소당 최대 2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진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등록 후 7년 미만의 청년 창업자다.

신청은 진안군청 농촌활력과 청장년지원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와 동시에 발표평가에 사용될 발표자료를 담당자 이메일(ckdaldsl@korea.kr)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진행되며, 최종 대상자는 오는 8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진안=전필범 기자

장수군, 장마철 피해 선제 대응 강화

산사태 취약지역 응급복구예찰 강화

장마철 산사태 예방총력 신속한주민대피체계 구축

장수군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복구와 사전 예찰을 강화하는 등 산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현재 관내 산사태 취약지역 35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산림재난대응단 45명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상시 점검하며 배수로 정비와 위험요인 제거에 나서고 있다.

또한 임차한 중장비를 활용해 절토지 응급복구를 실시하는 등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장수군은 무주국유림관리소와 전북특별자치

장마철 농작물 병해충 방제관리 당부

작물별 관리요령 안내

장수군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침수와 병해충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들에게 주요 작물별 병해충 방제와 배수 관리 등 사전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사과와 벼, 노지작물, 시설작물 등 주요 작물별 관리요령을 안내하며 장마철 피해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정했다.

먼저 사과 과원은 집중호우로 뿌리가 드러난 나무는 흙으로 매워주고, 부러진 가지와 절단면을 최소화해 잘라낸 뒤 보호재를 발라 2차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 또한 장마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하기 쉬운 탄

저병과 갈색무늬병(갈반병) 등 병해충 방제를 적기에 실시해 피해를 줄여야 한다.

벼는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환경이 이어질 경우 도열병과 잎집무늬마름병, 흑명나방, 이화명나방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군에서 지원하는 적용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논두렁과 물꼬를 정비해 배수가 원활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작물은 일조 부족과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예방 방제를 철저히 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한편 비닐하우스 주변을 점검해 빗물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접수

7월 8일부터 신청 내연기관차 처분 후 구매 시 '전환지원금' 신설 혜택

임실군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친환경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사업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8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하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28대, 전기화물차 6대 등 전기자동차 34대와 전기이륜차 25대 등 총 59대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90일) 이상 계속해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 군민과 임

실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기관·단체·공공기관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대리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대리점을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구매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지원이 마련됐다.

전기승용차는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생애 최초 구매자에게 국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는 자녀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택시는 250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화물차는 소상공인과 차상위계층 이하에게 국비지원액의 30%, 농업인과 택배사업자에게는 국비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해 생업현장의 전환경

차량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된 '전환지원금'도 눈길을 끈다. 최초 등록 후 3년이상 보유된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 제외)을 판매하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구매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원의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차량 구입가격에 따라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등 일부 복지급여 수급 자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이 없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전기차는 최초 등록일부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타시도로 이전하거나 관련규정을 위반할 경우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어 신청전 공고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1인 사업장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주 경제적 부담 해소

무주군이 무주군로컬JOB센터와 함께 '문화관광형 1인 사업장 첫걸음 채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인 영세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 업무 및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사업 성장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선정 사업장에는 신규 직원 채용 시 1인당 연간 6백만 원의 채용장려금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규 고용 3개월 차에 360만 원, 5개월 차에 240만 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대상 사업주는 등록된 구직자를 신규 채용해야 하며 신규 채용자와 주 35시간 이상(결혼이민여성의 경우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상형 무주군로컬JOB센터 센터장은 "첫걸음 채용장려금이 홀로 사업을 운영하는 1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올해 무주군로컬JOB센터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문화관광형 창업지원 사업 선정기업과 △지역특화산업(관광, 특산물 가공 등) 관련 제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브랜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거점배출시설' 5개소 추가 설치

오수상계관촌덕차지사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정착 기대

임실군이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쓰레기 방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분리배출 편의를 위해 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거점배출시설' 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거점배출시설은 주민들의 배출 접근성이 높고 쓰레기 불법투기 우려가 있는 관내 주요 거점 지역 5곳(오수상계·관촌·덕차·지사면)에 마련됐다.

신규 설치로 임실군 관내 거점배출시설은 기존 27개소에서 총 32개소로 확대되어, 주민들의 분리배출 환경이 한층 더 편리해질 전망이다.



시설 내부에는 재활용품 등 생활폐기물을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는 전용 수거함이 마련됐으며, 비가림시설과 불법투기 방지용 CCTV 등을 갖추어 상시 쾌적하고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거점배출시설 확충을 통해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가 정착되고 마을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시니어클럽 작가단, 기록에서 돌봄으로

인터뷰 중 생활불편 발견 주거환경 개선 지원

임실시니어클럽이 운영 중인 노인일자리 시범사업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이 어르신의 삶을 기록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우수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은 한국 노인인력개발원이 올해 신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65세 이상 어르신을 직접 찾아가 살아온 삶을 인터뷰하고, 이를 수기 또는 자서전으로 기록한다. 어르신의 삶을 존중하고 기억을 남기는 정서적 복지 모델로서 새로운 형태의 노인일자리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기록 작가단 참여자들이 독거 어르신의 자택을 방문해 수기 작성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이 높은 현관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작가단은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지역 복지자원인 '좋은이웃들'과 즉시 연계했다. 높은 계단 구조를 완만한 경사로로 개선해 어르신이 보다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어르신의 삶을 기록하는 과정이 생활 속 위함을 발견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하는 복지 연계로 이어진 것이다.

임실시니어클럽(관장 김윤호)은 "어르신들의 삶은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인생이야기 기록 작가단을 통해 삶의 가치를 기록하고,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지역사회와 연결하는 따뜻한 노인일자리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가동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최선

무주군이 내달부터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한다.

이는 체계적인 지방세입 체납액 관리와 공정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조치로, 맞춤형 징수 체계 구축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주군의 연간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은 28억여 원으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 상담, 안내문 전달 등 실태조사를 병행하며 행정절차에 따라 상습

체납자들에게 대한 현장 징수 활동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납자를 '단순', '고질', '생계형'으로 세분화해 유형별로 관리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납세를 회피하는 고질·상습 체납자는 압류재산 매각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는 한편, 생활고를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유예하고 행정의 복지 부서와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장수군>

장수군, 폭염 속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활동 강화

장수군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장수군은 지난 6월부터 온열질환 예방요원 8명을 선발했으며 요원들은 지역 내 농작업 현장과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폭염에 취약한 농업인 412명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현장에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 휴식하기, 낮 시간대 농작업 자제 등 폭염 대응 핵심수칙을 안내하고 이온음료 분말과 쿨타일 등 온열질환 예방물품을 배부하며 농업인들의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또한 여름철 농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도 함께 안내해 폭염은 물론 각종 농작업 안전사고와 감염병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노후 가로등 보수차량 교체

안전한야간통행환경 조성 힘써

임실군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억 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5톤 고소작업차를 신규 구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관내 가로등 7,914 등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가로등 유지보수 전담인력 4명을 2개조로 운영해 군민들의 안전한 야간 통행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가로등 고장 신고 730건을 처리하는 등 신속한 유지보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가로등 보수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잦은 고장으로 인해 현장 출동 및 유지보수 작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장비 노후화에 따른 작업 효율 저하뿐만 아니라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새롭게 구입한 차량은 최대 작업 높이 11m까지 작업이 가능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시설물 점검, 긴급 복구 작업 등 다양한 현장 업무에 활용될 예정이며, 또한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 피해 발생 시에도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완주 김미수·정대영 부부 이서면에 100만원 전달

완주군 이서면의 김미수·정대영 부부가 지난 1월에 이어 또다시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했다.

김미수·정대영 부부는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이서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기부받은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생활 전반에 도움이 필요한 지역 내 취약계층과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에 전액 사용할 계획이다.

기부에 참여한 김미수 씨는 “약소하지만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남편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소미례 이서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사회를 향해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해 주신 부부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부해 주신 소중한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취약계층에 부부의 따뜻한 마음과 함께 의미 있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익산 오성종합기획·외가집 착한가게 가입

익산시 인화동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며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인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8일 ‘오성종합기획(대표 송영주)’과 ‘외가집(대표 김주현)’을 방문해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오성종합기획은 간판과 광고물 제작 업체이며, 외가집은 정성 가득한 음식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음식점이다.

송영주 대표는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가게를 운영할 수 있었던 만큼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었다”고 전했고, 김주현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눔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내장상동, 누전 화재 피해 가구 밀착 지원

임시 거주지 제공 긴급 구호물품 전달

정읍시 내장상동이 지난 1일 전기 누전으로 주택 화재 피해를 입은 가구를 돕기 위해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고 생계 복구를 지원했다.

내장상동 행정복지센터는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을 위해 송명마을 경로당을 임시 거주지로 확정했다. 피해 가구가 이곳에 머무는 동안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한적십자사와 참총은사람들, 정읍시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 기관과 연계해 긴급 구호물품을 전

달했다. 이신영 내장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도 직접 이불과 기본 생필품을 구입해 후원하면서 온정을 더했다.

화재 현장의 빠른 복구를 돕는 지역 사회의 손길도 이어졌다. 김성순 회장이 이끄는 정읍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소속 대원 18명은 무더운 날씨에도 화재 잔해와 타버린 가재도구 등 폐기물을 신속하게 수거했다.

이들은 집안 내부를 함께 정리하면서 피해 가구의 시름을 덜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일하는 의용소방대와 자원봉사자들에게 식사를 지원하는 /정읍=김정민 기자



김제 용지면 주민자치위원회 직접 재배한 옥수수 나눔

김제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6일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영환)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자치 특색사업 ‘옥수수 행복 나눔’을 추진하며, 직접 재배한 옥수수를 수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올봄부터 함께 씨를 뿌리고 정성껏 가꾸은 옥수수를 수확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른 아침부터 수확에 나선 위원들은 서로 힘을 모아 작업을 진행하며 풍성한 결실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옥수수 행복 나눔’ 사업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협력과 소통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행사 역시 주민들이 함께 땀 흘리며 결실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수확한 옥수수 판매 수익금은 용지면 내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사업에 활용될 예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윤봉기 기자

SGC에너지, 군산시에 장학금 6,650만원 기탁

총 73명 장학생에 전달

SGC에너지(대표 이복영, 박준영, 이우성)는 8일, 군산 사업장에서 발전소주변지역(군산시)에 거주하는 학생 73명에게 총 6,65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SGC에너지 군산사업부 본관 강당에서 개최됐으며, 표영희 부사장을 비롯해 장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6년 1차 장학생은 중학생 29명, 고등학생 34명, 대학생 10명, 총 73명으로, 장학금 지원 기준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표영희 부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겠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자원봉사센터 ‘빛나는 청춘사진관’ 성료

군산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김민재)는 ‘2026 빛나는 청춘사진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8일 옥산면 대령경로당을 비롯한 10개소를 방문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 300여 명에게 추억이 담긴 액자와 키링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2026 빛나는 청춘사진관’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운영됐다. 자원봉사자

들이 직접 지역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에게 학창 시절의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교복을 입혀드리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잊고 지냈던 청춘의 기억을 되새기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다.

센터는 촬영한 사진으로 액자와 키링을 제작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전달하며 소중한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아리랑명품추어탕, 부안군에 3년 연속 기부

부안군은 지난 7일 아리랑명품추어탕 구철호 대표가 지역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구철호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 3년 연속 부안군에 기부하며 꾸준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일회성 기부에 그치지 않고 매년 나눔을 이어오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리랑명품추어탕은 부안을 본점으로 두고 현재 7개 분점을 운영하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지역에서 시작한 외식 브랜드를 확장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나눔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구철호 대표는 “앞으로도 부안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완주 학래촌, 관내 어르신에 돼지고기 120근 후원

완주군 구이노인복지센터가 지역업체인 학래정육전(학래촌)에서 돼지고기 120근을 후원받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이 지역 대상자 240여 명에게 대접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이웃 간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후원받은 돼지고기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직접 전달됐으며, 무더운 여름철 식사 영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됐다.

안정현 구이노인복지센터장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식사관리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학래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무더운 여름철, 자동차 안에 놔두면 안되는것!

손 소독제



전자기기와 운동화

안경과 선글라스



라이터, 스프레이, 페트병

Infographic showing items that should not be left in a car during hot weather: Hand sanitizer, shoes, electronics and sneakers, sunglasses, lighters, spray, and PET bottles. Each item is accompanied by a car icon and a prohibition sign.

〈一事一言〉



계엄 표결 불참의 미스터리, '한심한 공방'과 '웃기는 해명' 사이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아니면 권력을 위한 연극인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당의 집안싸움이 접입가경이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당시 김민석 전 총리의 불참을 정조준하자, 김 전 총리는 '명예훼손'과 '법적 책임'을 운운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친명계와 친청계의 이전투구(泥田鬪狗)가 본격화된 모양새다. 그러나 이들의 불성사나운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씩씩함을 넘어 참담할 뿐이다.

우선 이성윤 의원을 비롯한 친청계의 공세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치졸하고 한심한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

김 전 총리가 누구인가. 윤석열 정권이 국지전을 획책하거나 이를 빌미로 계엄을 선포할 가능성을 가장 이른 시기에, 가장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던 인물이다. 계엄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먼저 인지하고 경고했던 이가, 막상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해제 시점까지 두 손 놓고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상식의 영역이다. 같은 당의 동지이자 전북 지역구를 대표하는 중진 의원이, 이러한 전후 사정은 강그리 무시한 채 선거용 흡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행태는 깊은 실망감을 자아낸다.

그러나 비판의 화살을 이 의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당사자인 김 전 총리의 해명 역시 실소를 자아내기는 마찬가지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였던 그 엄혹한 비상계엄 정국에서, '과로로 감기약을 먹고 깊이 잠들었다'는 해명은 그야말로 '웃기는 이야기'다.

우리는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의 비상계엄을 온몸으로 겪어낸 세대다.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군부의 무자비한 공포가 어떤 것인지 푹푹히 기억하고 있으며, 그 공포 앞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나약함도 충분히 이해한다. 차라리 "갑작스러운 계엄 군부의 공포에 압도되어 잠시 자리를 피하고 은신했다"라고 고백했다면, 당시의 삼엄했던 상황을 기억하는 대중에게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해명으로 다가갔을지 모른다. '감기약 때문에 몰랐다'는 식의 군색한 변명은 정

지적 무게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결국 이번 사태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이라는 엄중한 사안을 두고, 한쪽은 상식 밖의 꼬투리 잡기로 정쟁을 일삼고, 다른 한쪽은 황당한 변명으로 본질을 흐리는 서글픈 정치판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치인이 대중의 신뢰를 얻는 길은 복잡하지 않다. 과오가 있다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공포가 있었다면 당당하게 고백하는 '정직한 행보'에서 출발한다. 정치인들이 계략과 변명 대신 거짓 없는 투명한 정치를 행할 때, 비로소 우리 정치 사회도 맑아질 수 있다.

당권 경쟁에 눈이 멀어 정직을 잃어버린 두 정치인에게 묻고 싶다. 당신들이 바라는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인가, 아니면 권력을 위한 연극인가.

오늘의시

돌맹이 하나 / 김남주

하늘과 땅 사이에
바람 한 점 없고 답답하여라
숨이 막히고 가슴이 미어지던 날
친구와 나 제방을 걸으며
돌맹이 하나 되자고 했다

강물 위에 파문 하나
자그맣게 내고
이내 가라앉고 말
그런 돌맹이 하나

날 저물어 캄캄한 밤
친구와 나 발길을 걸으며
불씨 하나 되자고 했다

풀밭에서 개똥벌레쯤으로나
깜박이다가
새날이 오면 금세 사라지고 말
그런 불씨 하나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돌에 실릴 역사의 무게
그 얼마일 거냐고

그때 나 묻지 않았다 친구에게
불이 밀어낼 어둠의 영역
그 얼마일 거냐고

죽음 하나 같이할
벗 하나 있음에
나 그것으로 자랑스러웠다

시인 약력 : 1946년 전남 해남 출생. 1969년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1972년 유신 헌법이 선포되자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했다. 1978년 남민전에 가입, 활동하다 1979년 서울에서 체포되어 구속됐다. 이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광주와 전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첫 시집 '진혼가', '나의 칼 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아침 저녁으로 읽기 위하여' 등을 출간했다. 1994년 광주 5.18 묘역에 안장됐다.

사설

교권을 세우는 것이 학생을 지키는 길이다

전북 교원들의 교육 현실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 최근 조사에서 교원의 83.7%가 아동학대 신고를 우려해 생활지도와 수업을 소극적으로 하는 이른바 '방어적 교육'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은 절반을 넘어섰고, 상당수는 심리적 소진을 호소했으며, 자신의 자녀에게조차 교직을 권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더 이상 일부 교사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교육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교사들이 실제 신고를 당한 경험보다 '언제든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을 엄하게 지도하는 것조차 망설이고, 문제 행동을 제지하기보다 외면하며, 혹시 모를 민원과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지도만 하는 현실이 교실에 자리 잡고 있다. 이는 교사의 권위가 무너지는 문제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도를 할 수 없고,

교육적 판단보다 민원 대응을 먼저 걱정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건강한 학교를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성실하게 배우려는 다수의 학생들이다. 교실의 질서가 무너지면 교육의 본질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교권 보호는 교사를 위한 특권이 아니다. 학생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더욱 촘촘히 마련하고, 교육청이 교육활동 보호의 최전선에서 실질적인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 교사가 홀로 책임을 떠안는 구조로는 어떠한 교권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새롭게 출범한 전북교육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교사가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것인지, 아니면 신고와 민원에 위축된 교실을 방치할 것인지 결단해야 한다. 교권을 바로 세우는 것은 교사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학생을 지키고 교육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다. 교원 83%가 신고를 두려워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독자투고

더 큰 공감을 만드는 평화로운 집회문화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자 민주주의 사회의 불변의 가치이다. 집회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창구이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는 다른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때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집회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과도한 소음, 교통 방해, 시설물 훼손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오히려 전달하려는 본래의 취지는 사라지고, 갈등만 키울 수 있다. 따라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집회 시위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숙한 집회문화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된다. 집회 장소 주변 주민과 상인의 일상을 존중하고, 주회 측의 안전관리 안내를 준수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행동이다. 또한 최근에는 개인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한 생중계가 늘어나면서 참가자의 얼굴이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타인의 초상권과 개인정보를 존중하는 것 역시 평화로운 집회를 위한 중요한 약속이다.

평화로운 집회는 참가자와 경찰이 함께 만들어가는 결과이기도 하다. 경찰은 집회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고 있다. 참가자 역시 경찰의 안전조치에 협조하고 비폭력 원칙을 실천한다면 불필요한 충돌은 줄어들고 집회의 메시지는 더욱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집회의 성공은 얼마나 큰 목소리를 냈는지라 아니라 얼마나 질서 있고 평화롭게 자신의 뜻을 전달했는지에 달려 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법질서를 지킬 때 더 큰 공감을 만드는 평화로운 집회 문화가 자리매김할 것이다.

익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위 황호인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 전북 가-00022(원래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8502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8-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아름다운 공존을 희망합니다.

동물의 학대를 방지 하고 생명을 존중 합니다.



익산 대전환 개막...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도시



민선 9기 익산시가 도시의 틀과 산업 지도를 통째로 바꾸는 '익산 대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시장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최 시장은 "도시 구조와 산업을 바꾸겠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통해 시민이 주인인 도시를 실현하고 익산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최 시장은 이를 위한 3대 지향점으로 △일자리가 있는 도시 △사람이 찾는 지역 △시민을 섬기는 행정을 제시했다. 시는 3대 지향점을 바탕으로 도시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5대 분야 대전환과 5대 핵심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 광역의 길을 잇는 교통허브도시로의 대전환

우한 시는 '광역의 길을 잇는 교통허브도시'로의 대전환을 꾀한다. 그 첫걸음으로 새만금과 익산, 전주를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으로 묶는 광역교통망을 조성해 새만금과 연계한 산업·물류의 전진기지를 구축해 나간다.

미래형 교통수단도 대거 도입된다. 도심형 공교통(UAM) 기반을 다지고 드론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한편,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시범 버스를 운영해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를 건립하고 관련 교육 인프라도 크게 넓힐 예정이다.

◆ 산업의 내일을 육성하는 미래첨단도시로의 대전환

이러 '산업의 내일을 육성하는 미래첨단도시'로의 체질 개선이 진행된다. 시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전략적 기업유치를 통해 지역 산업의 중심축을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재편할 계획이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힘을 집중한다. 기업 활동에 꼭 필요한 규제를 개

선해 기업 이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이 찾아오는 활력 있는 도시로 전환해 나간다.

시는 미래 신산업 기술을 개발할 디지털 지식산업센터를 통해 미래 인재를 직접 키워내고, 복합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창업허브

와 스포츠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천만 관광도시'를 장기적 목표로 세웠다. 이에 따라 만경강 주변을 친환경 여가 공

5대 분야 발전 방향·5대 핵심사업 발표 AI·반도체 산단 구축 및 익산역 복합개발 등

신센터를 마련한다. 이 공간에서는 기업 초창기 교육부터 투자유치까지 한 번에 이뤄지는 원스톱 시스템이 가동된다.

특히 국가적 사업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발맞춰 익산의 첨단 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농촌과 식품이 성장하는 농생명도시로의 대전환

세 번째는 '농촌과 식품이 성장하는 농생명도시'로의 대전환이다. 시는 기존의 농업에 식품과 바이오산업을 한데 묶어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동물용 의약품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하고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시제품 생산시설, 임상시험센터 구축에 이어 바이오팩토리화 벤처타운까지 조성해 관련 우수 기업들을 익산으로 한곳에 모을 계획이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 기술을 접목한 그린바이오 산업을 확장하는 한편, 농지와 빈 땅을 활용한 태양광 햇빛연금 사업도 대폭 확대해 농가 소득을 보전한다.

◆ 역사와 관광,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K-문화도시로의 대전환

네 번째로 '역사와 관광,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K-문화도시'를 정립한다. 시는 문화에

간으로 꾸미는 워터프론트 사업을 추진하고, 금강과 만경강, 석산, 문화유산을 하나로 묶는 대형 관광벨트를 조성해 익산만의 독창적인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익산을 대표하는 축제 브랜드를 만들고 전국 규모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찾는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 나간다.

◆ 시민의 삶을 살피는 시민주권도시로의 대전환

마지막은 '시민의 삶을 살피는 시민주권도시'로의 전환이다. 시는 주거와 복지, 교육 등 시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에서 체감형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익산형 만원주택과 공공임대 신혼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성질환자와 저소득층,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살피는 익산형 시민건강 주치의제를 본격 운영한다.

또한 교통취약지역 대중교통 노선을 시민의견에 따라 전면 개편하고, 아이들을 위해 창의 교육을 전담할 전복 학생 진학·진로교육원을 조성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재난 예방 시스템까지 촘촘하게 구축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이날 최정호 시장은 민선 9기의 5대 핵심 프로젝트도 함께 소개했다.

익산역 복합개발 및 원도심 소생 프로젝트가 중심에 선다. KTX 익산역을 교통과 산업, 상업, 문화가 한데 모인 복합 광역거점으로 키워 익산역과 중앙동 원도심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 새만금 개발을 지원하는 배후 도시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이와 연계해 공공시설물과 도로 환경을 체계적으로 고치는 도시 리디자인 사업을 진행해 원도심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바꾼다. 또한 익산역 인근을 밀도 높은 관광거점 구역으로 조성해 자연스러운 원도심 재생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피지컬 AI·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낸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제3산업단지를 넓히고 제5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든다. 시는 이곳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반도체 부품 공장이 모인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 추진하는 9조 원 규모의 투자와 연계해 관련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식품과 자동차 부품, 2차전지 등 익산의 기존 주력산업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연구에서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신산업 먹거리를 발굴한다.

시는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글로벌 식품 수도로 도약시킨다는 포부다. 이미 구축된 1단계 기반을 바탕으로 푸드테크 연구개발(R&D) 허브를 만들고, 사업화·수출 중심의 산업단지로 기능을 확대해 식품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식품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국립식품박물관을 건립해 익산의 브랜드가치를 전 세계에 알린다. 초기 청년 창업가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첨단 스마트 제조 기반을 갖춘 청년창업 스마트 공유공장도 건립한다.

민선 9기 익산시는 시민과 함께 만드는 민관협력 협의체를 구축할 방침이다. '시민이 주인'이라는 철학 아래 모든 주요 정책에 시민과 학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현안을 토론으로 투명하게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시장과 공무원들이 시민 삶의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는 '걸어서 시민속으로' 행정을 펼쳐 다양한 목소리를 시장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정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관행적으로 반복되던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시의 살림살이 구조 전체를 혁신한다.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재정효율화 혁신단을 구성해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 기반을 다진다.

모든 사업의 예산을 원점에서 간간하게 재검토해 낭비되는 돈을 줄인다. 이렇게 아낀 소중한 재원은 시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사업과 익산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에 전액 집중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민선 9기 익산시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뜻에서 시작해 시민의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약속한 5대 대전환과 핵심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수행해 시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새로운 익산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라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